

피엘에이 체불임금 계속되는



거짓말, 거짓말, 또 거짓말

피엘에이의 임금체불이 벌써 9개월째다. 작년 4월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돼 2016년 1월인 지금까지도 해결될 줄 모르고 있다. 피엘에이 대주주가 바뀌면서 지난 12월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도 바뀌었다. 새로운 대주주는 피엘에이지회와 대화를 특별교섭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전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주주총회를 핑계로 한차례 미루더니 말도 안되는 은행업무 문제라는 핑계를 대면서 지금까지 두차례나 더 약속을 어기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기다릴 인내심이 없다

피엘에이 경영진이 9개월째 월급을 못받은 노동자의 생활을 상상이나 해봤는지 모르겠다. 경영진이 아무리 현장 노동자의 삶을 모른다고 해도 9개월째 월급 한 톨 못받고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치

밀어 오른다.

새 경영진은 노동조합과 관계를 개선하고 대전공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벌써 깨졌다. 체불임금을 해소하겠다더니 해를 넘기고 말았다. 우리에게도 더 이상 기다릴 인내심이 없다. 피엘에이의 체불임금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다. 대표이사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체불임금 해소! 고용안정 보장!

대주주가 바뀌면서 공장 정상화를 위한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자본은 역시 똑같았다. 조합원들의 목숨같은 임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본과는 더 이상 대화가 필요없다. 지회는 체불임금이 해소될 때까지 전면파업 투쟁도 불사할 예정이다. 지부도 피엘에이 자본에게 처절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노동부와 검찰을 압박하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노동자 임금 떼먹는 추악한 저질 자본은 반드시 응징한다.

보쉬전장 대표이사 처벌이 다가온다

보쉬전장에서 노조파괴가 일어난지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현장은 말할 수 없이 망가졌다. 아마 보쉬전장 자본은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며 충분히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는 굴하지 않고 3년을 싸웠고 이제 노조파괴의 총 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처벌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검찰은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면죄부를 주었다. 보쉬전장에 대해서도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고, 압수수색도 형식적으로 끝났다. 결국 고작 6개월 ~ 10개월 구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했고 법원은 가벼운 벌금으로 판결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창조컨설팅 관련한 노조파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제 1월 21일 2심 판결이 다가오고 있다.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노조파괴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대전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통해 사업주를 처벌해야 동일한 범죄가 사라질 수 있다. 지부는 판결 전까지 지부 전 조합원의 탄원서를 통해 법원에 우리의 뜻을 확실히 전달할 계획이다.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파업집회

일시 : 2016.01.08(금)
장소 : 추후공지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단식투쟁 돌입 결의대회

일시 : 2016.01.06(수) 16시
장소 : 청주시청 앞